

# 심의회는 광주시, 승인고시는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필지 용도 변경 논란

‘지원시설’ 변경 문제, 광주시 심의회 ‘공익성’ 조건부 의결  
‘조건이행 검증’의 권한 없는 광산구가 특혜 진원지로 직격탄

최근 논란이 된 소촌농공단지의 일부 필지 용도 변경 문제를 놓고 논란과 비판의 화살이 엉뚱한 곳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법상 심의회는 광주시가 하고, 승인 고시는 광산구가 하는 이분화된 구조 속에서 실질적 승인 권한을 가진 광주시가 ‘공익성’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걸고 용도 변경의 길을 터주는 바람에 애꿎게도 광산구만 특혜 진원지로 오해받고 있는 것이다.

3월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A산업은 2021년 12월 광산구에 소촌산단 용도변경 건을 신청했다. 광산구는 산업입지법상 ‘중대한 변경(각 시설면적 10% 증가 및 누적 변경 면적 1만㎡ 이상에 해당 하는 변경)’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 의결권 등이 있는 광주시에서 ‘승인’ 여부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촌산단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끝에 지난해 6월 24개 조건을 달아 심의 의결했다. 용도변경 타당성, 사업자가 제시한 자동차 정비사업 설치의 적절성, 지원시설 확보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성 등을 비롯한 ‘향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특색 있는 안건이므로 이를 상세할 공

익적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광주시는 핵심이 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광주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승인 고시를 해야 하는 광산구의 입장만 난처하게 됐다. 특히 용도변경 신청 사업자가 전임 광주시장 자녀로 알려지면서, 특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점도 부담이 됐다.

A산업은 광주시 심의에 따라 조건이행계획을 광산구에 제출했으며, 광산구는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서, 유관 기관, 전문가 등을 총동원해 4개월에 걸쳐 검토를 벌였으나 한계에 부딪혔다. 승인 조건은 광주시가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이행계획은 광산구가 검토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광산구는 일부 조건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 작업이 막히자 국토교통부에 질의 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광주시 심의위원회에게 조건 이행계획을 확인받고 처리할 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광산구는 국토부 답변에 따라 광주시에서 사업자의 조건이행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해달라

고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지정권자(광산구)가 확인하고 처리할 사항’이라며 다시 광산구에 책임을 떠넘겼다.

광산구는 결국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에도 사회적 관심 사항을 고려해 유관 부처와 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열고 다시 한번 숙고 절차를 거쳤으며, 승인 조건에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관’을 붙여 지난해 4월 소촌산단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하는 결정을 내렸다.

광주시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을 권한이 없는 광산구 입장에서선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지만, 광산구는 승인 고시 이후 ‘특혜 진원지’로 비난의 화살을 맞고 있다. 급기야 광산구의회에서 ‘승인 결정 명분 만들기’, ‘광산구 공직자 외압에 무기력’ 등의 주장까지 제기됐으며, 별도의 특위 구성까지 제안된 상황이다.

광산구는 “절차상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신중히 검토하고, 공정한 행정 처리와 공익성 담보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지만, 구정에 대한 불신, 불필요한 오해 등이 커질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광산구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촌산단 용도 변경 건을 계기로 제도의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따져 보고, 다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온누리상품권 이용 ‘골목형상점가’ 늘어난다

공병철 광산구의원 대표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윤남동·사진)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및 상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골목형상점가’ 사업은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2008년 8월 정부의 특별법 개정 후 광산구도 2011년 3월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했으나, 까다로운 요건 탓에 참여가 저조해 현재 고려인마을 인근 산정산인회 한 곳에 그치고 있다.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영업 중인 상인의 50% 이상과 해당 구역의 토지구·건축



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골목상점가 지정을 위한 주민 요구사항은 내부 인터리어 교체나 간판 개선 등으로 토지구·건축주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 취지를 고려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에서 ‘토지구·건축주 동의’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병철 의원은 “특색 있는 상점 골목들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까다로운 지정 요건이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조례로 골목형상점가들이 늘어나 골목상권이 성황을 이루고 침체됐던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될 바란다”고 말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이주노동자들 노고 위로·재충전 시간”

광산구, ‘이주노동자 문화제’ 성황리에 열려



박병규 광산구청장이 지난 3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광산에 울려 퍼지는 봄의 노래, 삶이 있는 노동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린 제1회 광산구 이주노동자 문화제에 참석해 ‘소외와 차별 없는 광산구’를 약속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는 지난 30일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광산에 울려 퍼지는 봄의 노래, 삶이 있는 노동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제1회 광산구 이주노동자 문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는 연대와 단결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한다는 노동절의 의미를 살려 이주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상생의 노동환경 구축을 다짐하는 취지가 마련됐다.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몽골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 및 가족 500여 명이 한데 모여 평소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행사가 진행됐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날 문화제 축하사에서 “이주노동자는 생산과 소비 주체로 지역경제에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존재”라면서 “이주노동자들

이 소외·차별 없이 존중받고, 당당히 권리를 누리려는 광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년 11월 기준 광산구 외국인주민은 2만 2859명으로 광주 전체 외국인주민의 55.5%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는 4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산구의회, 정책지원관 5명 ‘신규 임용’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의정활동 전반 지원



광산구의회는 지난 28일 신규 정책지원관 5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지난해 1월 전 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 정수 절반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해 4월과 11월 각각 2명의 정책지원관을 우선 채용한 데 이어 5명을 추가 채용함에 따라 의원정수 18명의 절반인 9명을 모두 충원했다. 이번 임용은 올해 2월 서류 전형, 3월 면접 전형을 거쳐 총 16명의 지원자 중 3.2대 1의 경쟁률로 최종 5명의 합격자를 선발했다.

신규 정책지원관은 기존 인력과 함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조례 제·개정 및 폐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예·결산 심의 등 의결 ▲구정질의회서 작성 및 자료 취합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장은 “전문 지식과 외부 경력을 두루 갖춘 정책지원관들이 모두 임용됨에 따라 향후 의정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의원 및 정책지원관들과 호흡을 맞춰 의회가 주민의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 ‘광산공유센터’ 시범 운영

무료개방... 주민 의견청취

광주 광산구는 “지난 2일부터 ‘광산공유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간, 물품, 재능 등 다양한 공유 활동, 문화를 확산하는 거점인 공유센터는 하남3지구(광산구 단전1길 14, 하남동 1009번지)에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다.

1층에는 만남의 광장과 마을회관이, 2층에는 물품공유실, 공유체험실을 배치했으며, 3층은 공유부엌, 재능프로그램실, 다목적실을 갖추고 있다. 공유물품은 캠핑용품, 생활용품, 소형운동기구, 어린이 장난감 등 총 119종에 달한다.

광산구는 시범 운영 기간 센터 내 공간을 무료 개방하고,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관이 필요한 경우 이용 3일 전 현장방문 또는 유선(954-6222-6225)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물품 대여는 시범운영 기간에는 이용할 수 없다. 광산구는 이날 중 센터 운영기관을 모집한 뒤 이르면 6월부터 공간 공유는 물론 물품 대여, 공유 프로그램 등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안정적 운영과 지역 내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센터 운영 방향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